

연중 제27주일  
군인주일

기도서 452면 (C해)

제1독서 : 하바 1, 2-3 ; 2, 2-4

제2독서 : II 디모 1, 6-8. 13-14

복음 : 루 가 17, 5-10

#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그대로 심어저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루가 17, 6).

### □ 강론



## 격려와 관심을!

### 안철문 신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6백만명 유대인이 학살되었다고 한다. 유대인들이 수감되었던 한 지하 감옥의 벽에 손톱으로 그린 “다윗의 별”이 발견되었고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취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지금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하느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우리는 어두움의 절망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어두움 건너편의 승리를 바라보는 절실하고도 확신에 찬 그들의 참 신앙을 볼 수 있다.

오늘은 19번째 맞는 군인주일이다. 이 날은 군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요, 형제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격려와 관심을 보내는 날이다. 격려와 관심은 그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해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희망을 불러 일으켜 준다.

젊은 그들이 입대한다고 마지막 인사를 했을 때 우리는 손을 흔들며 “가서 잘 살아라”고 당부했었다. 그것은 산과 바다와 하늘에서 보내는 시간들과 흘리는 땀들이 값진 경험이 되기를 바라고 한 말이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연 그들이 우리의 기대처럼 잘 살고 있을까? 또한 그들이 잘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언젠가 나는 “국방부 시계가 돌기만 하면 제대한다”는 어느 사병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은 지금의 생활을 참고 이겨내며 성실을 다하기 보다는 체념하는 말이 아닌가? 아니 젊은이로서 희망과 믿음이 없는 모습이 아닐까? 오히려 그들이 인내와 노력과 희생으로 보람과 기쁨을 찾는 군생활을 할 수는 없을까?

예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느 시간과 상황에서도 믿음을 주는 말씀이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그분과 함께 자기 생명을 참으로 사랑하며, 그들이 자신의 희망을 소중히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기도와 격려를 보내자!  
(군중신부)



## 목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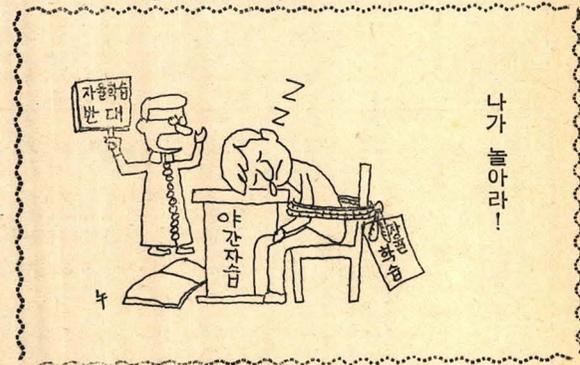
지난 8월 어느 날, 무주를 떠난 버스가 장계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밀려온 “한국적 내음(?)”이라 할 수 있는 최루개스 때문에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안이 병병했다. 우리 모두가 그토록 좋아하는 풋풋한 시골 내음을 누가 이다지도 잔인하게 짓밟고 있는가 하는 마음에 분노가 왈칵 치솟았다. 시골에서, 그것도 꼭 병원 앞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게 독하다는 국산 최루개스를 풀어 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중에 안 일인데, 그날 장계에서는 무주·진안·장수 지역의 가톨릭 농민회원 단합대회가 있었다. 이들은 단합대회를 마치고 읍내에 들어와 “농민 생존권과 민주헌법 쟁취하자”는 주장을 외쳤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눈물과 폭력으로 번지고 말았다. 왜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핏줄이 같은 동족인데도 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가!

일은 번지고 또 번져서 9월 11일 운주 장터에서 있었던 “미국 농축산물 수입 저지 실천대회”로 가톨릭 농민회 전북연합회장과 총무 등 5명이 즉시에 회부되어 10일간 구류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소위 장계사건이 터진 50여일만에 다시 그들에 대한 연행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매듭이 난 사건으로 거듭 고통을 당하는 현실이 보통사람의 상식으로서는 납득이 안된다.

간장은 해가 목을 수목 맛이 있다. 그리고 서양사람들은 술을 오래오래 묵혀서 자랑거리로 삼고, 그 후손들에게 물려준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꼬집어 내는 목은 이야기, 그것도 법적으로 매듭이 난 목은 이야기를 되풀이 하는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못된다. 아니, 그것은 치사한 반칙이다. 힘을 가진자의 보복처럼 불쌍 사나운 일은 없다. 민주화 개헌을 추진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이렇게 자행되어도 괜찮은 것인가!

## 숲 정 이 산책



### \*남미(南美)에서 온 편지\*

#### ✦ 그리스도의 평화

공경하올 주교님, 친애하는 신부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교구의 모든 수도자님들과 교형 자매님들께. 86년도 전교의 달을 맞이하여 남미 선교사 세 신부가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의 크신 은총 안에서 각자의 신앙 체험과 이웃들과의 나눔을 통해 기쁘고 보람된 나날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세 신부들도 교구내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 에 힘입고, 개인적인 서신교류 그리고 일 년에 한 번씩이기는 하지만 교구보 숲정이를 통해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림으로써 서로 한형제라는 짙은 유대감과 형제애를 항상 잊지 않으면서 주어지는 하루 하루를 기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교구의 제반 어려움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없앨 수 없습니다. 특별히 작금의 어려운 조국 현실에 신앙인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종일관,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함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는 잘못된 가치관의 흐름 속에서 개인과 가정의 세속적인 안정과 즐거움만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보다 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곳 남

미에 우리의 순교 선열들의 불타는 신앙과 또 그 신앙심을 본받고자 하는 오늘의 우리 교형 자매님들의 뜨거운 신앙심을 전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되새기면서 저희들의 인간적인 아쉬움을 접어두고 있습니다.

어느덧 저희들의 멕시코 생활도 1년이 넘어섰고, 이제 약속된 임지인 페루로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 다. 이미 정 요셉(승현)신부는 임지로 떠났고, 김 안셀모(윤섭)신부와 방 베드로(의성)신부는 10월말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선교사로서 남미인들을 사목하고 있지 않는 입장이기 에 특별한 선교보고를 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 교구설청 50주년 행사에 저희 세 신부중 한 신부가 참석하여 많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교구내 모든 성직자, 수도자, 교형 자매님들께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남미 선교사 정 요셉(승현)  
김 안셀모(윤섭)  
방 베드로(의성)신부 일동 드림

<주소> APDO POSTAL 22009  
DELEG TLALPAN 14000  
MEXICO, D.F. MEXICO

#### ☐ 성서교실 59

###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루가 17:5)

5절은 마르코, 마태오에는 안나온다. 6절은 양자에 다 나오나, 마태오에는 「간질병」 이야기(17:20) 속에 나온다.

「믿음을 더하라」라는 말을 놓고, 그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더하다」는 원어로 「푸르스며테미」이다. 「같은 종류의 것을 더하라」는 말도 되고, 「틀린 종류의 것을 더하다」는 말도 된다. 전자의 경우로 우리가 해석하면, 제자들이 자기들의 신앙이 약하고 적은 사실을 보고, 이것을 강하고 많게 해달라고 청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 예수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너희는 신앙을 더해 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앙은 저자세 한 알만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신앙이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후자의 경우로 우리가 해석하면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은사(恩賜)를 구하는데 가급적이면 신앙도 주라고 청한 것이라는 것이다. 신앙이란 저자세 한 알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만능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면 제자들은 모든 것에 형통하다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그대로 심어져라」 하더라도 될 것이다.」(17:6)라는 사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도들이 「신앙을 더해 주라」고 청한 데 대해서 저자세 한 알만한 신앙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예수는 말하고 있다. 이 간단한 문답 가운데 깊은 신앙의 「신비」가 들어 있다. 「신앙을 더해 주라」는 말 속에는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신(自信)이 잠재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신앙을 조금 가지고 있으나,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앙은 양(量)의 문제가 아니고 질(質)의 문제이다. 그러기에 예수에 있어서 이것은 신앙사활(信仰死活)의 대(大)문제였다. 이 생각을 예수가 고쳐주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히 참다운 신앙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신앙의 힘(力)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다. 신앙의 동선(銅線)이 하나님께 이어진다면 무한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올 것이다. 힘의 대소는 동선의 대소에 관계하지 않는다. 신앙에는 유무(有無)가 있을망정 대소(大小)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마르 9,24).



**나 비 커 텐**  
**염 가 봉 사**  
 라자가구 옆  
 선경커텐 종합전시장  
 전주시 중앙동 2가53-5  
 전화 82-2226  
 2-5198  
 박 용 욱(테레사)

**한일썩크전시장**  
 가스렌지 일절  
 영업읍 씬크 전시판매장  
 이리시 중앙동 3가57-8  
 전화 3-2676  
 이 문 희  
 감 영 자(사비나)

**황수경 산부인과 의원**  
 자궁암 검사. 질 성형수술  
 여 의 사 황 수 경  
 산부인과 전문의  
 이 승 열(엘리아)  
 흥 전주 2-7272  
 관통로 서울신락은행건너편 골목



교 구 소 식

- ☆ **축! 견진(12일)**: 원명 천주교회, 12일 오전 10시, 주례-박정일 주교님
- 1. 추계 주교총회: 6일~8일,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 2. **젠모임**: 2계 모임(고등학생~성년), 3계 모임(국민학교 1년~중학생)  
10월 5일 오후 2시30분, 장소-가톨릭 센타 교육관 ※젠성가집 지참
- 3. **사랑의 다리(사회복지 후원회) 회원 릴레이사 및 성지순례\*안내**  
시기-10월 6일(월) 오전 10시30분, 집결장소-숲정이(해성학교 교정)에서 10시30분 출발, 순례코스-숲정이~치명자산  
미사-김환철 신부님 집전, ※ 많은 회원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4. **군중후원회 10월 릴레이사**: 6일 오후 7시, 장소-가톨릭센타 성당
- 5. **소녀 꾸리아 회의**: 12일 오후 1시30분, 장소-전동 천주교회 사제관 2층  
대상-전주지구 pr간부
- **서석기 신부님(할영 주임) 퇴원**: 교통사고로 대학병원에 입원중이셨던 서석기 신부님께서 2일 퇴원하셨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염려를 주신 교구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간 농촌사목지 「주님의 날」 10월호 안내

월간 농촌사목지 「주님의 날」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호는 로사리오 성월을 중심으로 농촌 공소의 전례를 돕는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10만인 성지순례(오후 2시~5시)

일	요일	1코스: 전주 숲정이→치명자산		2코스: 여산 숲정이→천호 순교자묘지	
		담당신부	봉사자	담당신부	봉사자
5	일	김준호 신부	김성균·이영미	김기곤 신부	연규식·양민우
11	토	김봉희 신부	전중희·이명숙	김병영 신부	김진면·김혜경
12	일	양경배 신부	연규식·양민우	김의철 신부	김성균·이영미

※ 가정기도 독서: 시편 84: 1~12 마르코 4: 30~32

♣ **잡간!**

☆ **삶을 성가로 찬미-**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이 있듯이 성가는 마음을 하느님께 들어올리는 기도이며, 이웃과 회노애락의 감정을 나눔으로써 하느님을 찬미하는 2배의 기도인 것입니다.” 생활성가 발표회가 앞에서 표현한 그 취지의 뜻대로 10월 4일 진동 청년연합회 주최로 많은 이들의 격려 속에서 막을 올렸다 한다. 생활성가는 전통적인 전례 성가와와는 달리 삶 속에서 엮어지는 체험적인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 부르는 이와 듣는 이가 하나 되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촉진제 역할을 해준다. 좋은 계절에 뜻깊은 마음들이 모여서 치루어진 이 생활성가 발표회에 늦은 박수갈채를 보낸다. 계속 청년회의 일치와 발전 속에서 참 신앙의 삶을 노래하게 되길-

☆ **청년들이 하나되어-**

제3군·유지구 6개본당 청년회가 한데 모여 친선 단합체육대회를 열었다. 청백전의 승리의 행운이 어느쪽으로 가든 그것이 중요치 않다. 젊음을 서로 나누며 신앙 안에서 서로 마음을 합하는 데 큰 뜻이 있으므로 이 친선이라는 글귀 그대로 신앙을 다지고 공동체가 좀더 성장해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흐뭇하다.

교구내 청년회들이 뭔가 해보려는 선의의 움직임이 보인다. 이런 때야말로 용두사미가 아닌 결실을 향해 힘찬 도약의 행진을 해야 하지 않을까-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부안**  
**신영근치과의원**

원장: 신영근  
(프란치스코)  
☎ 2-6390  
부안 시외버스터미널 옆  
현대상호금고 2층

**성소 피정**

1. 때: 1986년 10월 19일(일) 오전 9시~오후 6시(미사 있음)
2. 장소·연락처: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3동 산25 성모여고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82-1057
3. 참가대상: 수도생활에 뜻이있는 교구 이상의 미혼여성

**요심이** (687) 김병오



**제3회 독서감상문 모집**

보다 많은 이들이 양서를 선택하여 읽음으로써 교양과 인격을 높이고 풍부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제3회 들·봄희 잔치로 다음과 같이 독후감상문을 모집합니다.

- \*응모자격: 국민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대학·일반부
- \*선정도서 및 구입처: 성바오로출판사 서적 구입처-전국 성바오로서원
- \*원고매수: 200자 원고지 6~15매
- \*접수마감: 86년 10월 31일
- \*접수장소 및 연락처: 전국 성바오로서원  
우편접수-(132)서울 도봉구 미아동 103 성바오로출판사 들·봄희 담당자
- \*시상내용: 상장과 부상  
①우수상-각2명 ②장려상-다수 ③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 \*수상자 발표: 지상발표로 12월 7일자 가톨릭신문과 들·봄희저 '길' 32호
- \*독서감상문에 이름과 학교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하시오.  
주최: 성바오로출판사  
후원: 성바오로 여자수도회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총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울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기 곤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 1. 금주는 증거주간입니다: 사랑과 시간의 나눔, 불우한 이웃과 물질의 나눔을 통해 증거하는 생활을 합시다
2. 축! 보좌신부님 영명축하식: 오늘 공식미사 후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3. 사목회 상임위원회: 오늘 공식미사 후 상임위원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4. 주일헌금 배가운동: 교구설정 50주년 기념사업에 위해 주일헌금 배가운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5. 예수성심회 월례회: 7일 어머니미사 후
6. 공소 순회미사: 11일 저녁 8시 신원리공소
7. 금주의 전례: 해설-이종관, 독서봉헌-박상규 부부, 신자기도-전해권 부부, 촛불봉헌-조홍기 부부, 차주전례: 해설-임영민, 독서봉헌-최재인 부부, 신자기도-윤석연 부부, 촛불봉헌-안재홍 부부
8. 오십회장: 김병문, 성모회장: 한정애 수고하시겠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500,222원 교무금: 627,000원
지난주 신축금: 687,0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1. 10월은 로사리오 성월: 매일 미사후 성모상 앞에서 묵주기도 바칩니다
2. 10월은 전교의달: 1일 1인 예비자 봉헌
3. 10만단 묵주기도 봉헌: 전신자 1일~31일 지향-교구 50주년 기념행사 1신자 1인 전교
4. 오늘 군인주일: 2차헌금
5. 가정방문: 8일-중앙동 1반 오후 2시·반미사 오후 8시30분(정루시아씨 때) 10일-전북1반 오전 10시·반미사 오후 8시30분(이요안나씨 때)
6. 젊은이 단합대회: 9일
7. 환영: 전입김의연(3명) 태평동
8. 증: V.T.R. T.V. 중앙동 신교영씨 감사합니다
9. 성우회: 다음주일 오전 9시 성당전결(여산 천호성지)
10. 푸리아 회합: 다음주일 오후 2시
11. 50주년 기념행사 및 본당공사 헌금 100만원-이명, 50만원-김복수, 30만원-박경숙·송영자, 20만원-강희술·서봉희·정정자·엄기택, 10만원-전정순·차정자·김민정·백정숙·최계순·신교영·정옥규·김중옥·송정혜·조경웅·나경섭·구원희, 5만원-이봉춘·허두례·김학필·이명·김중근·유기남·박옥순, 4만원-박경숙, 3만원-윤양순·안병주·김남희·전봉남·구정자, 2만원-신금남·박봉혜·이명순, 1만원-김용식·엄복진·이명·오귀복, 5천원-김종래·신차래·김삼기, 계-4,755,000원, 누계-21,710,000원
12. 금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강주호 ②김성원 봉헌-이정우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정운주, 독서-①황마리아나 ②이갑진, 봉헌-유두석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412,490원 교무금: 634,85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이 정 우

- ☆ 오늘은 군인주일이며 2차헌금 있습니다
1. 사목회: 공식미사 후
2.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교무금을 빠짐없이 분담하여 본당운영에 협조합니다
3. 영세식: 19일 공식미사 중에 있고, 추수감사제 및 우정의 날 행사는 공식미사 후에 있습니다
4. 성지순례: 교구 실시 10만인 성지순례에 전신자는 빠짐없이 참여하여 대사특음을 받으시다 일시-11일 오후 2시, 집결지-전주 숲정이

- 5. 제대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전례교역: 수요일 저녁미사 후
7. 순정이는 인을 찾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118,740원 교무금: 75,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감 덕 창
사무실 " 사목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 1. 자모회: 본당-단합대회, 7일 오전 10시30분 본당에서 출발, 평화동-야유회 8일 오전 10시 평화동성당에서 출발, 전원 참석바람
2. 돈보스코회(평화동성당): 7일 오후 2시
3. 14일 공식미사 후
4. 예비자교리: 학생-토요일 오후 6시·평화동성당-토요일 오전 10시, 일반-일요일 공식미사 후 화요일-7시30분
5. 감사: 14차 기증-강만금·김진례(14처) 김말다(8처)
6. 오늘은 군인주일: 2차 특별헌금 있습니다
7. 금주전례 본 당: 해설-고정수, 독서-①유용산 ②강기호 봉헌-김한기 부부 2성당: 해설-한문권, 독서-①박형식 ②김수중 봉헌-변두희 부부 차주전례 본 당: 해설-김은경, 독서-①김한기 ②진성복 봉헌-민병석 부부 2성당: 해설-문치규, 독서-①김광택 ②권학열 봉헌-박환옥 부부
□ 지난주 봉헌금: 본당-298,155원 2성당-100,010원 계-398,165원 교무금: 262,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 삼 범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레지아사무실 83-5085번

- ☆ 오늘은 군인주일: 특별헌금 있습니다
1. 사목회: 공식미사 후
2.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1시30분
3. 주일학교 가정방문: 7일·8일·10일·11일 주일학교 자모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4. 성심유치원 운동회: 9일 성심운동장 교우여러분의 관심바람
5. 레지오 옥외행사: 9일 오전 10시~오후 4시 치명자산, 전동 레지오 전단원
6. 자모회·소년푸리아: 다음주
7. 병자봉선제: 17일 환자있는 가정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8. 감사: 벨라벳대상(의명-20만원)을 기증해 주신분께
9.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 금요일반-오후 7시30분 토요일반(중·고생)-오후 5시 일요일반-오전 11시(오늘부터 시작합니다)
10. 미사시간 안내: 평일-오전 5시30분·오후 7시 주일-오전 5시30분·8시30분·10시, 오후 3시(어린이)·4시30분(중·고생)·7시
11. 교구설정 50주년 기념사업비 모금에 한 세대도 빠짐없이 10월중으로 신임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23,150원 교무금: 597,000원 50주년 헌금: 435,240원

(호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 종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 1. 수요성서 강좌: 창세기 19장~50장
2. 매일미사: 사무실에 있습니다
3. 전례연구 위원회: 10일 저녁 8시
4. 모임: 오늘-푸리아, 차주-글라라회
5. 감사: 성지순례에 봉사하신 분들께
6. 축! 결혼: 12일 12시30분, 전동성당 신랑-송재근(분도), 신부-김효숙(루시아)

# 천주교 전주교구 '86 청년대회

## 자, 일어나 가자!! (요한 14:31)

자치교구 설정 50주년을 한 해 앞두고 가톨릭 청년의 자세를 가다듬는 자리

### 1. 순회 강연

1. 자치교구 설정 50주년을 맞는 전주교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 호남 교회사 연구소 소장 김진소 신부  
장소: 군산 팔마 성당                      일시: 10월 27일 오후 8시
2. 민족 현실과 가톨릭인의 사명  
- 가톨릭 전국 평협 회장, 숙명여대 정치학 교수 한용희 교수  
장소: 이리 창인동 성당                      일시: 10월 29일 오후 8시
3. 가톨릭 청년 운동의 자세와 나아갈 길  
- 막사이사이상 수상자 제정구 선생  
장소: 전주 덕진 성당                      일시: 10월 31일 오후 8시

### 2. 본 행사(11월 23일(일))

오전 10:00	개회식
10:30	대토론회
오후 12:30	식사
2:00	놀이마당(생소한 젊음)
3:00	마당굿(돌들의 외침)
5:00	파견미사

장소: 전주 해성중·고등학교 강당, 운동장

## 천주교 전주교구 청년대회 준비위원회

## 함께 어울려 하나가 됩시다!!

